

“아버지가 구사했던 ‘동학’ 매개로 인간 내면 목소리 형상화”

광주시립합창단 ‘여울물 소리’ 공연
11월7~8일 광주예술의전당 대극장
황석영 소설, 아들이 동명창극으로

“12년 전부터 기획한 창극 ‘여울물 소리’는 한편의 조선 미학론에 가깝습니다. 구한 말 재담꾼 이던 ‘광대’를 소재 삼아 시대담론과 당대 개인의 미시적 역사를 투사하고, 창극의 스펙트럼을 넓히는 데 주안점을 뒀기 때문입니다.”



황석영 연출가



“사람이 바로 하늘이요, 하늘이 바로 사람”이라는 동학의 인내천 사상을 가사에 담은 ‘질은 어둠을 가르며’ 대목.

광주시립합창단(예술감독 박승희)이 창극 ‘여울물 소리’를 오는 11월 7~8일 오후 7시 30분 광주예술의전당 대극장에서 펼친다. 이에 앞서 16일 국악당에서 주요 대목을 미리 만나는 프리뷰 시간이 마련됐다.

황석영 작가가 문단 데뷔 50주년을 기념해 발표했던 소설 ‘여울물 소리’를 동명 창극으로 극화한 이번 작품은 황 작가의 아들 황호준 씨가 연출을 맡았다. 황 연출가는 ‘새야 새야 주재에 의한 국악관현악 바르도’로 대한민국 작곡상을 수상했으며 국립합창단 ‘미디어’, 광주시립합창단 ‘솔의 노래’ 등을 작업했다.

원작 소설은 동학 혁명의 실패 후에도 희망을 잃지 않고 밝은 미래를 염원하는 소시민적 삶을 초점화한다. 이를 모티브 삼은 창극은 어떤 모습일까.

황 연출가는 “아버지가 구사했던 원작의 맛, 운율을 살리면서 완성도 있는 창극을 만드는 것이 쉽지 않았으나, 원작을 따라가면서 인간 내면의 목소리를 형상화하기 위해 노력했다”며 “만약 아들이 아니었다면 원작자가 항의할 만한 부분이 있을 정도로 ‘적극적인 개작’을 시도했다”고 말했다.

원작 소설의 서사에 열개를 두면서 공연 형식을 잘 접목한 점은 ‘여울물 소리’만의 매력이다. 원작의 여러 인물들 한 명으로 통합하거나 시공간의 편집, 특정 에피소드를 삭제하는 등 개작을 거쳐 흥미를 배가시켰다.

극은 동학의 대규모 전쟁 장면도 과감하게 덜어냈다. 주인공 연옥은 강경 객주를 운영하다가 동학 혁명에 참여한 이신통과 사랑에 빠진다. 이 과정에서 역사의 소용돌이에 주목할 수도 있으나 개개인의 감정 표현에 방점을 뒀다.

원작에 복잡하게 나타나는 인물들의 감정변화, 시간 흐름은 창극에서 어떻게 재구성됐는지 궁금했다.

황 연출가는 “출연진이 이런 점을 소화하기 쉽지 않았을 것”이라며 “특정 인물이 죽는 시간대를 뒤늦거나, 장소와 시간을 교차시키는 드라마틱한 변주를 통해 해결했다”고 답했다.

이날 자리에서는 작품의 세 가지 주요 대목을 미리 감상할 수 있었다.

특히 통성으로 지르는 목구멍 소리가 인상적인 ‘질은 어둠을 가르며’ 대목은 황석영 소설 속 ‘검고 짙은 어둠 저 너머로 아시아의 또 다른 빛이 명멸하고 있었는대’ 등 원문의 감동과 연결돼 있다.

수십 명의 단원들은 횡대로 늘어선 동학의 인내천 사상, 역사의 주인의식을 투영한 가사를 집단 창(唱)했다. 연창자들의 공통 율동과 장단을 뚫고 나오는 선명한 아니리는 뮤지컬·오페라의 아리아와 겹쳐 보인다.

일자별 주역들의 페어(한 쌍의 배역)가 다른 점도 감상 포인트 중 하나, 7일에는 상임단원 정승기와 이

서희가, 8일에는 비상임단원 박준현과 고혜수가 출연해 합을 맞춘다.

박승희 예술감독은 “이 같은 구성은 국악계 신예에게도 기회를 주기 위함”이라며 “정통의 ‘단단한 소리’와 비교적 ‘날것’으로 느껴질 수 있는 두 음향이 관객들에게 상이한 감각으로 전이될 것”이라고 했다.

현장에서는 여주인공 정연옥이 홀로 살아남아 자연물(나무)에 환타하는 ‘고고천년’도 울려 퍼졌다.

남녀 주역의 2인창인 이 대목은 판소리 사설과 감정을 엮어내는 솜씨가 돋보였다. 창자의 구연에 가벼운 너름새까지 곁들여져 가무악이 혼합된 장면을 연출했다.

3인칭 서사에 갇혀 있던 판소리적 특징은 대화 중심의 앙상블로 변용됐다. 판소리가 ‘일종의 솔로 오페라’라는 말을 연상시키는 부분이다. 국악관현악기와 창자들의 성음이 조화를 이룬 ‘음향’ 측면에서도 이번 창극은 동시대적(컨템퍼러리) 효과를 실감한다.

박승희 예술감독은 “여백의 음향인 ‘여향’은 동학 농민운동을 비롯한 동서양 역사가 아직 미완 상태임을 암시하는 계제로 활용된다”면서 “순환하는 전향과 여향의 향연 속에서 관객들은 불안정한 역사가 완성으로 향해가는 메시지를 실감하게 될 것”이라고 했다.

글: 사진=최유빈 기자 rubi@kwangju.co.kr



‘은하수를 향하여’

푸른 바다 은하수...황홀감에 빠지다

정우성 사진전, 11월 13일까지 달정원

은하수는 하늘에만 있지는 않다. 끝없이 펼쳐진 망망대해에도 은하수는 있다. 심해에도 눈부시게 푸른 은하수가 있다는 것을 정우성 사진작가의 작품을 보면 실감하게 된다. 그만큼 푸르고 신비롭다.

정우성 작가의 사진전 ‘푸른 바다 은하수’ 전. (11월 13일까지 달정원)

전시장에 들어서면 ‘푸른 바다 은하수’를 통째로 전시장으로 옮겨온 느낌이다. 무아지경의 황홀감이다. 상상으로만 그려왔던 바다 속 풍경이 눈앞에 펼쳐진다. 흔히 볼 수 없는 수중사진전만큼 전시가 주는 감성도 색다르다.

정 작가는 “고등학교부터 40년간 사진을 찍어왔는데 스쿠버다이빙을 배운 지는 10년 정도 됐다”며 “이번 전시는 세계 10대 다이빙 스폿 중 하나인 필리핀 도홀 발라카삭 섬에서 찍은 작품들”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많이 배우고 많이 찍은 만큼 사진이 점점 좋아지는 것 같다”며 “그림 같은 사진을 찍어 여러 사람들과 함께 공유하는 즐거움이 크다”고 덧붙였다.

이번 전시장에는 모두 40여 점의 작품이 걸렸다. ‘은하수를 위하여’, ‘푸른 바다 은하수’, ‘은하수 가는 길’, ‘난파선 유영’, ‘햇살 좋은 날’, ‘질주’ 등 작품은 이색적인 ‘수중 건물의 출사위’를 선사한다.

‘은하수를 향하여’는 눈 부시게 푸른 저편

의 세상을 향해 유영을 하는 거북이의 모습을 초점화했다. 해저에 드리워진 생물, 거북이 주위를 떠도는 작은 물고기들의 움직임 또한 자유롭고 평화롭다.

‘햇살 좋은 날’은 마치 대나무 잎 사이로 들이치는 햇빛을 구현한 듯한 작품이다. 자세히 보면 무수히 많은 고기때들이 뿔뿔한 군무를 이루며 움직인다. 무질서 속의 질서, 숨 막힐 것 같은 조화에 감탄을 하게 된다.

정 작가는 지난 8월에는 촬영하는 동안 멍기열에 걸려 사경을 헤매기도 했다. “잠사도 중 골수종이 의심된다는 소견이 있어” 자세한 검사를 받기 위해 2주간을 기다렸다. 당시에 사진을 정리하며 전시를 준비했다고 한다. 막상 아무런 이상이 없다는 결과가 나왔을 때 “새 생명을 다시 얻은 느낌이었고 사진과 삶 등이 소중한게 다가왔다”고 전했다.

한편 정 작가는 17대 광주사진동호회 회장을 맡고 있다. 그는 “항후 광주의 오래된 곳을 찾아 사진으로 기록하고 싶다”며 “동호회 활동도 하고 가르치면서 바쁘게 보낼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정 작가는 목포대에서 공학박사학위를 받았으며 현재 (주)가나토건 대표이사, (사)파킨슨행복센터 이사를 맡고 있다. 전시 수익금 일부는 기부.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광주시립합창단’ 공연 모습.

〈광주시립합창단 제공〉

광주시립합창단의 아름다운 입맞춤

정기연주회 ‘The KISS’... 18일 광주예술의전당

합창곡 중에는 입맞춤을 주제로 한 노래들이 많다. 토스티의 ‘멘켄의 소녀에게 입을 맞추다’나 아르티디의 ‘입맞춤’은 그 일례다. 아마도 합창의 미성이 아름다운 입맞춤을 연상시키기 때문일 것이다.

광주시립합창단(상임지휘자 임창은)이 정기연주회 ‘The KISS’를 오는 18일 오후 7시 30분 광주예술의전당 소극장에서 펼친다. 입맞춤을 모티브로 창작된 세계 현대음악을 만나는 자리이며 해설 및 지휘에 임한다.

총 18곡으로 구성된 이번 연주회는 1부에서 미국, 스웨덴, 아르헨티나 등 동시대 합창을 이끄는 세계 작곡가들의 작품을 들려준다. 이어 2부는 사랑, 평화, 행복을 주제로 한 곡들을 선보일 예정이다.

제이크 루네스테드의 ‘Sing, Wearing the Sky’를 시작으로 안 잉예 곡 ‘A Triumph to Exist!’, 올라 아일로 ‘피아노 즉흥연주가 포함된 유비 카리타스’ 등이 울려 퍼진다. 전문 연주단체 ROND오케스트라가 함께하는 ‘민국의 노래’도 연주된다. 2부에서는 피아졸라의 ‘리베르 탱고’, 댄 데이비스 ‘리듬(Ritmo)’ 등으로 관객을 만난다.



임창은 상임지휘자

보이는 토스티 ‘입맞춤을 위하여!’ 등이 레퍼토리에 있다.

바이올린 협연은 독일 로스토크 국립합대를 졸업한 뒤 광주시향에서 악장으로 있는 이종만이, 피겨는 상임단원 이현동과 고희현이 맡는다.

임창은 지휘자는 “지휘자로 취임한 뒤 시민과 만나는 첫 무대라는 생각에 다양한 현대작곡가들의 대표작을 준비했다”면서 “작업 해설을 진행하는 한편, 경쾌한 곡 ‘Ritmo’에서는 관객들이 참여할 수 있는 요소도 마련했다”고 했다.

전석 1만원, 티켓링크 예매.

/최유빈 기자 rubi@kwangju.co.kr

파죽지세 한강 책, 200만부 언제 돌파할까

‘소년이 온다’·‘채식주의자’·‘작별하지 않는다’ 순 인기

노벨문학상 수상작가인 한강의 책 판매가 100만부를 돌파하면서 200만부 고지에 오를 수 있을지 초미의 관심사다.

작가 한 명의 책이 수상 소식 발표 6일 만에 100만부를 돌파한 건 한국 출판 사상 처음 있는 일이다. 지금과 같은 추세라면 머지않아 200만부 고지에도 도달할 수 있다는 관측도 점쳐진다.

출판계에서 ‘밀리언셀러’로 불리는 100만 부는 꿈의 숫자다. 1년에 약 6만 여종이 발간되는 상황에서 100만 권 판매는 기적에 가깝다.

한강의 책 가운데 100만부를 넘긴 책은 ‘채식주의자’다. 한강에게 맨 부커상 국제 부문에 안긴 ‘채식주의자’는 노벨상 이전까지 110만 부가 팔렸다. 흥미로운 점은 노벨상 이후에 40만 부가 팔주돼, 노벨문학상의 인기를 실감케 한다.

16일 교보문고에 따르면 노벨상 수상 이후 한강의 책 가운데 가장 많이 팔린 도서는 ‘소년이 온다’였다.

이어 ‘채식주의자’, ‘작별하지 않는다’, ‘할’, ‘서랍에 지낙을 넣어 두었다’ 순이었다. 반면 eBook 판매순위에서는 ‘채식주의자’가 ‘소년이 온다’를 앞섰다. 이후 순위는 종이책 판매와 동일했다.

수상 소식 이후 도서를 구매한 독자들은 30대의 비율이 28.9%를 차지했다. 40대가 23.1%, 50대가 19.2%를 차지해 40대 50대가 절반을 넘을 만큼 한강의 책을 선택했다.

한편 지난 2020년 이후 100만권 돌파는 모두 4



권이였다. 올해 ‘세이노의 가르침’이 100만부를 넘었고 20권으로 이뤄진 일본만화 ‘슬램덩크’ 단행본이 100만부를 돌파했다.

또한 지난 2021년 출간된 김호연의 ‘불편한 편의점’ 1권과 2022년 나온 2권을 합쳐서 100만부를 넘겼다. 마지막으로 지난 2020년 나온 이미예의 ‘달리구트 꿈 대화집’ 1권과 2권을 합쳐 100만부를 넘겼다.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전남아트박람회 ART 061’ 초대합니다

18~20일 화순 하니움센터...가수 벤·소프라노 강혜정 등 공연

지난해 여수에서 열린 ‘전남아트박람회’는 공연·미술 등 여러 장르에서 청년예술인을 발굴하는 자리였다. 당시 라이징스타 오디션 통해 청년예술가 15팀을 소개했으며 미술품 경매쇼를 진행, 지역 작가 5인의 작품을 1797만원에 낙찰했다. 이외에도 4인 4색전, 전남갤러리 그룹전을 통해 총 5030만원 판매고를 올리면서 신진 예술가에게 기회의 물꼬를 뒀다.

전남문화재단(대표이사 김은영·재단)이 제2회 ‘2024 전남아트박람회 ART 061’을 오는 18일부터 20일까지 화순 하니움 문화스포츠센터에서 펼친다. 지역 문화예술 콘텐츠와 예술인, 관람객이 하나로 어우러지는 박람회다.

개막식은 18일(오후 7시) 하니움 센터 공설운동장에서 KBS 열린음악회와 함께 진행한다. 가수 피프티피프티, 브브걸을 비롯해 벤, 육중완밴드, 김용임, 손태진, 소수님 등이 출연한다. 소프라노 강혜정도 성악 공연을 선보일 예정이다.

주요 행사로 마한문화 체험존, 남도 청년작가 블루아트페어, 서울옥션 연계 제로베이스 프리뷰전시, 아티스트 읍쓰앙과 함께하는 토크콘서트 등이 열린다. 19일 전남도립국악단의 ‘명인명창’ 공연, 18~19일 선권광장·이용대광장에서 버스킹 무대도 볼 수 있다.

이 밖에도 재단은 예술인 디너페스티벌, 지역문화재단 공연 갈라쇼 등으로 지역 예술인과 도민들이 즐



‘피프티 피프티’. 〈전남문화재단 제공〉

길 거리를 마련한다.

재단 김은영 대표이사는 “지역 문화예술 생태계의 변화와 발전을 위해 다양한 방법을 모색하고 있다”라며 “전남 문화예술시장을 활성화시키고 예술 가치를 확산하는 이번 행사가 전남의 ‘브랜드 페스티벌’로 자리매김되는 계기가 됐으면 한다”고 했다.

/최유빈 기자 rubi@kwangju.co.kr